선암사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조계종·태고종 화합의 상징 될까?

2月 선암사 분규 종식 선언
7月 협상 중단 주장에 홍역
다시 5인으로 위원회 구성돼
잡음 많아도 정상화 활기

올 상반기 각 사찰들이 특색있는 활동을 전개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분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활발했다. 특히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관리 방침을 정하고 협약을 맺는 등 50년 동안 빚어온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 종식의 가능성을 알렸다. 하지만 태고종 내부 일각에서는 협상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등 양측의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다.

50년 묵은 갈등, 해결 실마리 보이다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근현대 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협약식이 열렸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양 종단은 합의서에서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선암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조 혜명을 잇기 위해 분규종식을 선언 한다"고 밝혀 선암사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알렸다.

선암사는 예부터 선종과 교종 양파의 대표적 가람으로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순천 송광사와 쌍벽을 이뤘던 수련도량이었다.

〈선암사사적기(仙巖寺寺蹟記)〉에 따르면 진흥왕 3년(542년)에 아도 스님이 비로암(毘盧庵)으로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헌강왕 5년(875년)에 도선 국사가 창건하고 신선이 내린 바위라 하여 선암사라고 불렸다는 말도 전해진다.

6·25전쟁으로 소실돼 지금은 20여 동의 당우(堂宇)만이 남아 있지만 그전에는 불각(佛閣) 9동, 요(寮) 25동, 누문(樓門) 31동으로 도합 65동의 대가람이었다. 경내에는 보물 제395호 선암사 삼층석탑과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등 다수의 중요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이런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선암사는 성보문화재가 도난 당하는 등 사찰환경이 훼손됐다. 문제는 순천시의 부실관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70년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분쟁이 일자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순천시가 관리했던 40여 년 간 선암사에서는 성보문화재 도난·훼손과 문화재 보수공사의 부실공사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2010년 말 실제 입주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 사중 스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러한 문제는 순천시의회 시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태고종 선암사는 순천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조계종 측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태고종과 함께 '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암사 특위는 순천시장에게 있는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재산관리인 지정 해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인수위원장에 덕문스님(당시 조계종 선암사 주지)과 경담 스님(태고종 선암사 주지)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선암사 성보문화재 공동조사단'을 구성, 선암사의 재산권 보호와 제반 사항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부동산, 문화재 등 선암사 소유의 일체 재산 현황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사찰 내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2400여 점의 문화재와 균열 원인을 놓고 논란이 많은 수장고 내 관음불상 문제, 보관 중 분실한 문화재의 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실제 입주하고 있는 측인 태고종에서 협상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협상 시작 과정에서도 일부 제적승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에 나섰지만 선암사는 산중총회를 열고 협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선암사 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열린 태고종 종회에서 "조계종과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무모한 협상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종회의원이 참여하는 '선암사 협상을 위한 5인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협의가 진행되며 선암사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선암사는 6월 1~30일 제1기 단기출가학교를 진행했다.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2010년 말 창단한 선암사 복지봉사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지역복지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또 2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INBEX2011)에서는 5차례에 걸쳐 영산재를 시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고즈넉한 선암사 모습 잃어 안타까워"

조계종 선암사 주지 정만 스님

정만 스님(사진)은 태고종과의 분규해결에는 인내와 양보,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근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잦은 회합을 가져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암사 문제는 마지막 남은 양종단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례를 남기기 위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7월 19일 선암사를 방문해 소통 속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스님은 "지난 봉원사 문제를 돌아봐도 수년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은 인내 속에 상호 신뢰와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며 "선암사 문제는 그 무엇보다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총림으로서 수행사찰의 사격을 지닌 선암사가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선암사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전통사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사찰"이라며 "하지만 현재 지나친 장엄으로 그러한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태고종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선암사가 옛 모습을 다시 찾길 기대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발전 위해서는 서로 화합해야"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사진)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분규는 불교계에 유형적인 손해 외에도 무형적인 손해를 끼쳤다. 특히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엄이 사라진 것이 그것이다"며 양종단 화합의 시급성을 알렸다.

스님은 조계종과의 협상을 원만히 이끌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불교발전을 위해 양 종단이 "협상이 원만히 끝나 서로가 한국불교를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일조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시대변화에 맞춰 종교계가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분규로 인해 스스로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암사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경담 스님이 단장으로 있는 선암사 복지봉사단은 매년 명절과 부처님 오신날 등에 순천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 큰잔치'를 열고 명절에는 자매 결연을 맺은 순천시 승주읍 독거어르신 가정을 찾아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선암사는 향후 복지를 축으로 포교활동과 생활불교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승가노후복지와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선암사 스님 10명은 순천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2년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5명의 스님이 순천대에 진학할 예정이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 문제 해결은 선암사 역량 강화의 시작"이라며 원만 해결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